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20일 수원서 AWCL 4강 '남북대결'(종합)

등록 2026.05.04 12:18:18



[도쿄=AP/뉴시스]북한 축구 응원단. 2024.03.21.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이 확정되면서 경기도 수원에서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을 '남북 대결'로 치르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 내고향여자축구단이 경기 참가를 확정했다고 알려졌다"고 4일 밝혔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방남 규모는 선수 27명과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내고향 선수단에 대한 방문 신청 절차를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축구팀 방문은 2018년 10월 강원도 춘천 및 인제서 개최된 아리스포츠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한 4.25체육단과 여명체육단 유소년 팀(U-15) 이후 8년 만이다.



[양곤=신화/뉴시스]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김경용. 2025.11.09.
여자팀으로 한정할 경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국가대표팀이 아닌 클럽팀의 방한은 처음이다.

북한 선수의 마지막 한국 방문 경기는 지난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대회였다.

당시 북한의 차효심이 장우진(세아)과 혼합복식에 출전했다.

단일팀이 아닌 '북한 대표' 자격으로 공식 대회에 출전한 건 같은 해 9월 창원에서 열린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마지막이다.



[우한=신화/뉴시스] 수원FC 위민의 최유리(왼쪽)가 29일(현지 시간) 중국 우한 한커우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5-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8강전 우한 장다와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수원이 4-0으로 완승하고 4강에 올라 북한 내고향체육단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2026.03.30.

이로써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WK리그 소속의 수원FC 위민과 북한의 내고향이 AWCL 결승 진출을 놓고 단판 승부를 펼치게 됐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AWCL은 아시아 지역 여자 클럽팀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또 다른 4강전은 20일 오후 2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멜버른 시티(호주)와 도쿄 베르디 벨라자(일본)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우승팀을 가리는 결승전은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축구협회는 올해 1월 AFC에 이번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 개최 의향서를 제출했고, 규정상 해당 협회 소속 클럽이 준결승에 진출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한=신화/뉴시스] 수원FC 위민 선수들이 29일(현지 시간) 중국 우한 한커우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5-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8강전에서 우한 장다를 물리친 후 자축하고 있다. 수원이 4-0으로 완승하고 4강에 올라 북한 내고향체육단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2026.03.30.

중국축구협회도 개최 의향을 낸 가운데 수원FC 위민이 지난 3월29일 치러진 대회 8강에서 우한 장다(중국)를 4-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 티켓을 따내면서 우리나라가 개최권을 가져왔다.

북한의 내고향은 8강에서 호찌민 시티(베트남)를 3-0으로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약 15억1500만원), 준우승 상금은 50만 달러(7억5800만원)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